

최 레 Rye CHOI (b. 1985-)

2019 중국 중앙미술학원(CAFA) 예술학 박사 졸업
2013 중국 중앙미술학원(CAFA) 판화과 석사 졸업
2008 한국 중앙대학교 한국화과 학사 졸업

| 개인전 |

2023 7th 맥화랑미술상 '그윽하고 오묘한' (맥화랑, 부산, 한국)
2022 INTERACTIONS (gallery 청사포, 부산, 한국)
2021 polychrome (gallery H, 부산, 한국)
2021 行雲流水 (Bomstay gallery, 김해, 한국)
2021 공생 空生 (kz art space gallery, 부산, 한국)
2021 宇宙 (홍티아트센터, 부산, 한국)
2020 遊心 -노니는마음 (Bomstay gallery, 김해, 한국)
2018 色.空 (중앙미술학원 博雅전시실, 북경, 중국)
2017 비움과채움 (Artybox Busan, 부산, 한국)
2013 色.世界 (798 gallery ArtPark, 북경, 중국)

| 그룹전 및 아트페어 |

2023 Kiaf SEOUL (코엑스, 서울, 한국)
2023-2022 10-200, 행복한그림전 (맥화랑, 부산, 한국)
2023 PAUSE (맥화랑, 부산, 한국)
2023 ART BUSAN (벡스코, 부산, 한국)
2023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한국)
2023 BAMA (벡스코, 부산, 한국)
2023 INTERMISSIOM (맥화랑, 부산, 한국)
2022 제10회 울산국제목판화페스티벌 (울산박물관, 한국)
2021 국제수인목각판화요청전-공생의힘 (남경예술대학 공각미술관, 중국)
2021 거천아집-신춘수인판화전 (목리화랑, 중국)
2020 Rainbow-Wire (F1963 석천홀, 부산, 한국)
2019 경흥일별-국제당대예술초청전 (석가왕 국정미술관, 중국)
2019 Contemporary Korean Woodcut (Galerie Nothberga, Austria)
2018 란지의의 (798 Eden Art center, 북경, 중국)
2018 '화이부동 북경전'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고작가전 (민족문화궁, 북경, 중국)
2018 행운급중-중국수인판화문헌전 (강소성미술관, 남경, 중국)
2018 수인천년-중국수인판화대전 (절강미술관, 항주, 중국)
2017 한.중 미술교류전 (재중한국문화원, 북경, 중국)
2017 학원본색2017 (청화대학미술학원 미술관, 북경, 중국)
2017 감지중국 (중국미술학원, 항주, 중국)
2017 PIN ZHI (국제박람회, 이우, 중국)
2016 상생-중한국제예술교류전 (재중한국문화원, 북경, 중국)
2016 第一版 -DCCZ한중여성수인목각교류전 (재중한국문화원, 북경, 중국)
2016 상상의 흔적 (상8미술관, 북경, 중국)
2016 제5회 울산국제목판화페스티벌 (울산, 한국)
2016 국제 여성 - 시각예술(서안)전 (大华1935, 서안, 중국)
2016 TF기획 제2회"-王清丽 查赛 崔鹏 작품전 (Gallery CHENSHIA, 무한, 중국)
2016 국제 구상&추상전 (구강미술관, 구강, 중국)
그 외 다수.

| 수상 및 활동 |

2020 홍티아트센터 8기 입주작가 (레지던시, 부산, 한국)
2015 제5회 중국 관란 국제판화전 입선
2014 2014년 제16회 대만 중화민국 국제 판화전 입선
2013 제4회 중국 관란 국제판화전 입선
2012 제2회 중국 윤남 국제판화전 입선

| 전시서문 |

7th 맥화랑 미술상 (신진·청년작가지원전)

최 레 '그윽하고 오묘한'

맥화랑은 젊은 작가들의 지속적인 작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맥화랑미술상(신진,청년작가지원전)>이란 타이틀로 역량있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이어왔습니다. 2013년 이두원 작가, 2014년 조각의 유은석, 김현업 작가, 2022년 김현수 작가 등 <맥화랑미술상>을 통해 전시가 이루어졌던 청년 작가들은 현재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블루칩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맥화랑미술상(신진,청년작가지원전)>은 전통수성목판화 작업으로 인간 존재와 관계성에 대한 고민을 시각화하는 최레 작가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최레 작가의 주된 표현기법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수인판화 작업으로 전통 수성목판화와 동양화 기법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전 과정이 수공으로 진행되는 데, 젖은 목판에 수성 안료를 올리고, 젖은 화선지를 올려 직접 바렌으로 문질러서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작가는 단순해 보이는 하나의 원을 만들기 위해 수십 번의 찍고, 말리기를 반복하는데 이러한 과정속에서 층층이 쌓아 올려지는 색의 변화는 작가가 의도한 방향과 우연의 결합으로 풍부한 색의 질감을 만들어 냅니다.

작가의 작업은 '공(空)' 시리즈로 이어지는데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공(空)'은 원형의 이미지로서 표현됩니다. 원형의 이미지 자체는 단순하지만 원과 원의 관계, 원과 원의 사이와 경계, 이미지 표면과 그 너머의 이면 등에 대한 작가의 끊임없는 고민은 이미지가 존재하는 다양한 화면과 공간 밖으로 확장됩니다. 하나의 원과 또 다른 원의 중첩, 혹은 원과 원의 닿을 듯 말 듯한 경계 그리고 그 사이, 원과 원이 함께 있으므로 인해 파생되는 에너지 등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윽하고 오묘한>이란 타이틀로 3월 16일(목)부터 4월 8일(토)까지 진행됩니다. <맥화랑미술상(신진,청년작가지원전)>을 통해 젊고 유능한 작가들이 미술시장에 소개되고 붓을 꺾지 않고 작업을 지속하며, 좋은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맥화랑이 작가들의 발돋움판이 되길 바랍니다.

- 맥화랑 큐레이터 김정원 (Mar. 2023)

| 작가노트 |

공(空)

공(空)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 그 무엇도 없는 텅 비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空은 단순한 이미지인 원으로 표현됩니다. 원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한 부드러운 곡선이 처음의 점까지 도착해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모난 부분이 없이 완벽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원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원과 원이 존재하는 화면 안에서, 화면이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완벽한 하나의 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원, 혹은 화면에서 단절된 원 등 다양한 형태의 원을 구성하고, 하나의 원 또는 수십 개의 원이 함께 있는 화면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원을 그리고, 만들고, 조각하고, 색을 올리고, 여백을 구성하고, 공간 안에 다시 배치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쳐도 작품은 미완성입니다. 원과 화면의 여백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작품이 걸리는 공간과 관객과의 관계 안에서 화면이 완성되는 공간을 남겨두기 위한 것입니다. 즉, 관객들과 원의 만남, 관객과 공간과의 만남이 작품의 나머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과 또 다른 원의 중첩, 원과 원의 닿을 듯 말 듯 한 경계 그리고 그 사이, 이미지 표면과 그 너머의 이면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작품 그 자체로서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 너머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 관한 사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존재하는 다양한 화면과 공간 안에서 내면의 많은 것들을 상상해 보고, 정신의 무한한 확장과 생명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 최레 (Jan. 2023)

Rye CHOI 최례 (b. 1985-)

2019 PhD in Arts, China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Beijing China
2013 MFA in Print, China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Beijing China
2008 BFA in Korean Paint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Solo Exhibition |

2023 7th Gallery MAC Young Artist Prize 'Rye CHOI' (Gallery MAC, Busan)
2022 INTERACTIONS (gallery cheongsapo, Korea)
2021 polychrome (gallery H, Korea)
2021 floating clouds vs. flowing water (Bom stay gallery, Korea)
2021 Simbiosis (kz art space gallery, Korea)
2020 Cosmos (Hongti Art Center, Korea)
2020 Wandering Heart (Bomstay Gallery, Korea)
2018 Color-Empty (Boya Gallery, CAFA, Beijing, China)
2017 Empty-Earnings (Korea, Artybox, Busan)
2013 SAHA SERIES (Beijing, China, 798 Art Park Gallery)

| Group Exhibitions and Art Fairs |

2023 Kiaf SEOUL (COEX, Seoul, Korea)
2023-2022 10-200, Affordable Paintings (Gallery MAC, Busan, Korea)
2023 PAUSE (Gallery MAC, Busan, Korea)
2023 INTERMISSION (Gallery MAC, Korea)
2022 The 10nd Ulsan International Woodcut Print Art Festival (Ulsan museum, Korea)
2021 Power of Symbiosis (Hongyue Art Museum, Nanjing, China)
2021 Art on Paper (CARIN, Korea)
2021 philosophia (lan art space, Seoul, Korea)
2021 Ju Chuan Assemble Scholars-waterprint woodcut exhibition (Muyi Gallery, Beijing, China)
2020 Rainbow-Wire (F1963, Korea)
2020 Fantasia (Gallery H, Korea)
2019 A Glimpse of Hope -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Invitational Exhibition (Guoding Art Museum, Shijiazhuang, China)
2019 Nebula (Art Sohyang, Korea)
2019 Contemporary Korean Woodblock Print Exhibition (Galerie Nothberga, Austria)
2018 The Orchid (798 Eden Art Center, Beijing, China)
2018 Calligraphy Beijing Exhibition (Palace of National Culture, Beijing, China)
2018 Literature Exhibition (Jiangsu Provincial Art Museum, Nanjing, China)
2018 Spirit of the Academy. The Way of Heaven (Yiwu International Expo Center, China)
2018 The Waterprint Millennium - A Great Exhibition of Chinese woodcut-waterprint (Zhejiang Art Museum, Hangzhou, China)
2017 Korea-China Art Exchange Exhibition (Korean Cultural Centre, Beijing, China)
2017 The Academy's Nature (Fine Arts Museum, Tsinghua University, Beijing, China)
2017 Perceiving China, China Academy of Art (Hangzhou, China)
2017 Ulsan International Woodcut Print Art Festival (Ulsan, Korea)
2017 The Spirit of the Academy - Quality (Yiwu International Expo Center, China)
2016 Coexistence - China and Korea International Art Exchange Exhibition (Korean Cultural Centre, Beijing, China)
2016 First Block - DCCZ China&Korea International Woodcut Exhibition (Korean Cultural Centre, Beijing, China)

2016 Imprints of Imagination (Beijing Shang Ba International Art Center)
2016 Ulsan International Woodcut Print Art Festival (Ulsan, Korea)
2016 International Female Visual arts Exhibition (China Xi'an)
2016 TF project - the second time (China Wuhan Gallery CHENSHIA)
2016 Exhibition of international Representational and Abstract art (China Jiujiang, Jiujiang Museum)
etc.

| Summary |

The main techniques of expression are painting using traditional woodcut-waterprint and Oriental painting techniques. The whole process is done by hand, where the aqueous pigment is placed on a wet woodcut, the wet ricepaper is raised and rubbed directly with the baren to create the desired effect. The artist repeatedly print and dry the woodblock dozens of times to make a single, seemingly simple circle. In the process of this repetition, the change in color that the layers are stacked up creates a rich color texture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direction I intended and the coincidence.

| Artist Statement |

Empty

Empty, at the same time, is both all-encompassing and void. Empty is expressed in the work as a simple image - a circle. A circle is a form formed by a gentle curve starting from a point and reaching the origin, without angles, a perfect one. The circle itself can be given a meaning and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within the circle and the image, as well as within the space in which the image exists.

The work can represent a perfect one circle, or it can form a circle of many forms such as a half circle or other one-sided circle, or it can form a picture of one circle or dozens of circles together. Even after completing a series of processes including drawing, carving, coloring, composing white space, and arranging space, the work is not yet complete. The emphasis on the composition of the circle and the white space of the picture is to leave the space for the work to be displayed to complete the picture within the relationship with the viewers. In other words, the encounter between the viewer and the circle, the encounter between the viewer and the space, completes the rest of the work.

Continuous thinking runs through the work, about the overlapping of one circle and another, the seemingly touching boundaries of circles and the space between the boundaries, the surface of the image and the deeper side of the image, etc. These reflections encompass the image shown in the work itself, as well as the existence beyond it. The image itself is very simple, but the various pictures and spaces containing the image can make people imagine a lot of things inside, conveying the infinite expansion of vitality and spirit.